

##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본 한일 경제협력의 발전과 특징

\* 본 보고서는 오대현 외1(2012),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한일 경제협력의 발전과 특징에 대한 고찰’, 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논집」 제57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40여 년 동안 개최된 한일경제인회의<sup>1)</sup>의 주제와 내용 분석을 통하여 한일 경제협력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규명하는 것임<sup>2)</sup>
- 한일 경제협력의 발전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한일경제인회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연대별 회의내용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한일 경제협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협력에서 선진국 간 경제협력 그리고 양국의 경제통합과 다국 간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음
- 둘째 그 동안 한일 경제협력은 정부 주도 하의 경제·산업협력에서 민간 중심의 경제·산업협력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기업·지역 간 협력으로 발전해 왔음
- 셋째 한일 경제협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경제협력 분야가 보다 구체적으로 변해왔음
- 따라서 앞으로는 한중일 경제협력을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협력의 주요 핵심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일 양국 간의 투자 및 무역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협력 방향 설정이 필요함

### 1. 최대 규모의 한일 경제인 모임

- 한일경제인회의는 수백 명의 양국 경제인 대표가 모여 매년 양국을 오가며 열리는 명실 공히 한일 경제협력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회의임<sup>3)</sup>
- 더불어 본 회의를 통해 양국간 합의한 공동성명문은 원칙적으로 양국 정상에게 전달 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양국간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음

1) 1969년 1월 27-29일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회의가 개최될 당시 회의명칭은 ‘한일·일한민간합동경제위원회’였다. 또한 1989년 제30회에서부터 ‘한일·일한경제인회의’로 회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6년의 제38회 회의에서는 회의 명칭을 단순화하기로 하고 제39회 회의부터 한국측은 ‘한일경제인회의(Korea-Japan Business Conference)’, 일본측은 ‘일한경제인회의’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특별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회의 명칭을 한일경제인회의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2) 본 보고서에서는 무역량, 투자규모, 기술도입 등의 실적 변화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을 분석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분석은 다른 연구논문(대표적인 최근 논문은 이종윤·김현성, 2010)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한일 양국의 경제인 대표들이 모여 경제협력의 어떠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향후 경제협력 방향을 어디로 이끌어가고자 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일 경제협력의 변화를 규명하고자 한다. 즉, 민간 차원에서의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양국 정부 간 경제협력 역시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3) 한일 양국간 민간경제회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련(經團連)의 대표들이 모여 경제현안을 서로 논의하는 한일경제회의가 있었으며, 양국 상공회의소 간 협의회가 있으나 규모나 역사 측면에서 한일경제인회의에 미치지 못함.

-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1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48회에 걸쳐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개최되었음
- 본 회의는 양국 경제인들이 그 당시 한일 경제협력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같은 시기 한일 경제협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는지를 확인하며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소중한 역사적 자료임에 틀림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경제협력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음

## 2. 경제협력의 이론적 개념

- 먼저 한일경제인회의에 관한 기본적인 개괄과 더불어 경제협력에 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쉽게 경제협력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임
-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의 종류는 협력의 상대와 주체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1) 경제협력이란?

-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이라고 하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경제협력을 가리키는데<sup>4)</sup> 이 경우 자금, 무역 그리고 기술과 인적자원(교육) 협력을 포함함
- 먼저 자금협력은 통상적으로 경제원조로 불리며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의에 따르면,<sup>5)</sup> ① 정부개발원조(ODA), ② 기타 정부자금(1년을 넘는 수출신용, 직접투자 금융, 국제기관에 대한 융자 등), ③ 민간자금(1년을 넘는 수출신용, 직접투자, 국제기관에 대한 융자, 비영리단체에 의한 증여 등)으로 구성됨

4)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村上(1979)을 참조하기 바람.

5) OECD홈페이지(<http://www.oecd.org/dac/aidstatistics/>)참조. 검색일(2012년 8월 2일).

- 원래 사적인 이윤동기에 좌우되는 민간자금을 원조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자금의 이용 가능성과 그 기능을 생각하면 이 역시 개발도상국에 기여하는 바가 작지 않음
- 한편 무역협력은 선진국이 관세, 비관세 양쪽 측면에서 수입 장벽을 낮추어 개발도상국 상품에 대해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을 가리킴
- 일례로 지난 1997년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 때에도 자금협력 규모와 개발도상국의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사실 마지막에는 융자상환을 위한 수출확대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의 수입확대를 통한 협력이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에 봉착했을 때 여러 나라가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 역시 일종의 경제협력이라고 할 수 있음

## 2) 경제협력의 유형

- 이렇듯 협력 상대가 어느 나라인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협력의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서도 경제협력은 구분할 수 있다(<표 1> 참조).
- 먼저 민간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은 일반적으로 관련 제도와 법을 새로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대부분임
- 따라서 구체적으로 양국 기업이 무역과 투자를 실행시키기 이전 단계의 협력 환경을 정비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동일 산업의 관련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는 형태의 산업 간 협력도 있을 수 있음
- 산업 간 협력은 정부 간 협력과 같이 제도를 정비하거나 뒤에 설명할 기업 간 협력과 같이 실제 교역 혹은 투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인적·물적 정보를 상호 교환하거나 파견단 등을 보내 협력 방법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산업 간 협력은 양국 혹은 다국 간 분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의 이론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기업 간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함

<표 1> 경제협력의 구분 방법과 유형별 특징

	경제협력의 유형별 명칭	협력 내용
상대 국가에 따른 구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경제협력	원래 경제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발원조와 같은 일방적 지원의 협력 형태
	선진국 간 경제협력	엄격한 이해관계에 근거한 상호 대등한 협력 형태
	다국 간 경제협력	지역공동체 혹은 경제협력체를 여러 나라가 구축하는 협력 형태
협력 주체에 따른 구분	정부 간 경제협력	양국 혹은 다국 간 정부가 논의를 통해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협력 형태
	산업 간 경제협력	기업 간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적·인적 교류를 해당 산업 관련기관에서 추진하는 협력 형태
	기업 간 경제협력	기술, 자본 등의 실물이 실제 기업 간에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 협력 형태
	지역 간 경제협력	특정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서서 지역 정부 간에 협력을 체결하는 형태

- 기업 간 협력은 경제협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양국 혹은 다국 간 경제협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천적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임
  - 아무리 훌륭한 경제협력을 위한 각종 협정을 체결하고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힘든 것이 사실임
  - 따라서 경제협력은 결국 기업이 중심이 되는, 즉 기업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지역 간 협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양국의 특정 지역 간에 서로 연계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형태를 말함
  -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경제협력보다 내용이 구체적일 수 있고 합의한 내용을 상대적으로 빨리 실행에 옮기는 등 협력의 성과를 단기간에 기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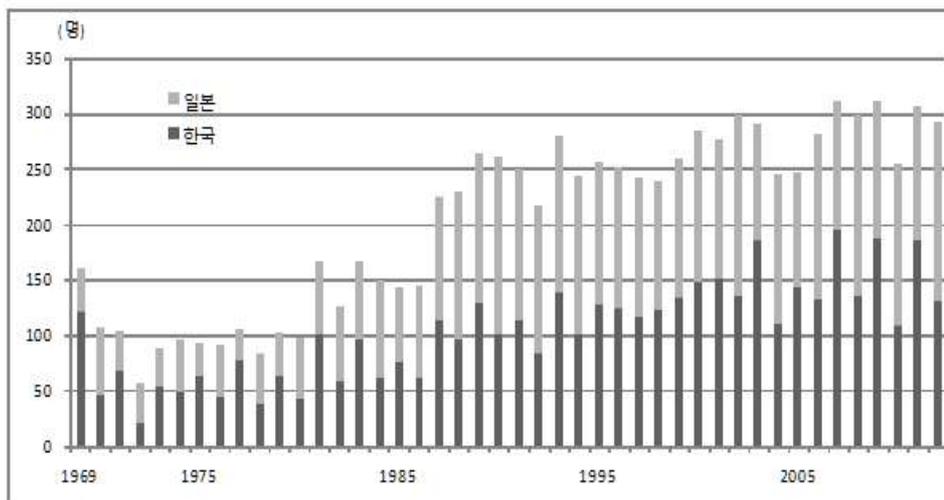
### 3. 한일경제인회의 개요

-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한 한일 경제협력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기에 앞서 한일경제인회의의 목적과 규모를 간단하게 확인한 후 의제의 결정 과정을 살펴봄
  - 특히 각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의제의 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그 당시 한일 경제의 당면과제는 물론 양국을 둘러싼 경제 환경 변화를 파악하여 한일 경제협력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선행과제이기 때문임

## 1) 개요

- 한일경제인회의 규약<sup>6)</sup>에 따르면 본 회의를 개최하는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음
  - 첫째, 한일 양국 경제계의 상호 이해와 친선을 강화하고 양국 간 무역, 기술협력, 경제협력 등 경제교류 촉진에 관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임
  - 둘째, 양국 경제계의 관심 사항에 대한 상호 인식 공유 및 경제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견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에 건의하는 것임
  - 셋째, 양국 경제계의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을 통해 경제협력의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임

<그림 1> 경제인회의 참가인원 수 추이



자료: 경제인회의의 각 년도 보고서에서 작성함.

-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개최된 회의는 매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제1차 회의 결과보고서<sup>7)</sup>에 따르면, 한일 국교정상화 이전부터 양국간 경제인들이 적극적으로 교류를 한 결과 본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실제 1969년 제1회 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이미 3차례(1966-1968년)에 걸쳐 양국을 오가며 ‘한일민간합동경제간담회’라는 명칭의 회의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음

6) 1969년 1월 27일 작성된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회의의 규약’ 참조.

7) 한일경제위원회(1969), “제1회 일한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보고서” 참조.

- 이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의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1969년 1월 주요 경제단체가 중심이 되어 한일 양측에 각각 발족된 ‘한일·일한경제위원회’에서 ‘한일·일한민간합동경제위원회’를 정례화하여 매년 1회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 그 동안 매년 홀수 해에는 한국, 짝수 해에는 일본에서 개최된 본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꾸준히 증가해 왔음(<그림 1> 참조).
  - 1970년대까지 100명 정도에 머물렀던 참가자 수가 1980년대 후반부터는 약 250명으로 늘어났으며<sup>8)</sup> 2000년대 들어와서는 약 3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
  - 아무래도 한국에서 개최할 때는 한국측 참가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반면 일본에서 회의가 개최될 때는 일본측 참가자가 많은 특징을 보임
- 그러나 1회 평균 참가자 수는 한국이 105명인데 반해 일본은 99명으로 한국측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 측 참가자는 1990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면 일본측 참가자 수는 오히려 2000년대 들어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참가자 수의 변화 추이는 상대국에 대한 양국 경제인들의 관심과 필요성을 엿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최근 중국의 부상 등으로 한국 정부는 물론 한국 경제인들이 일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2000년 이후 참가자 수가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반면 일본은 해외시장 공략이 점차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 또는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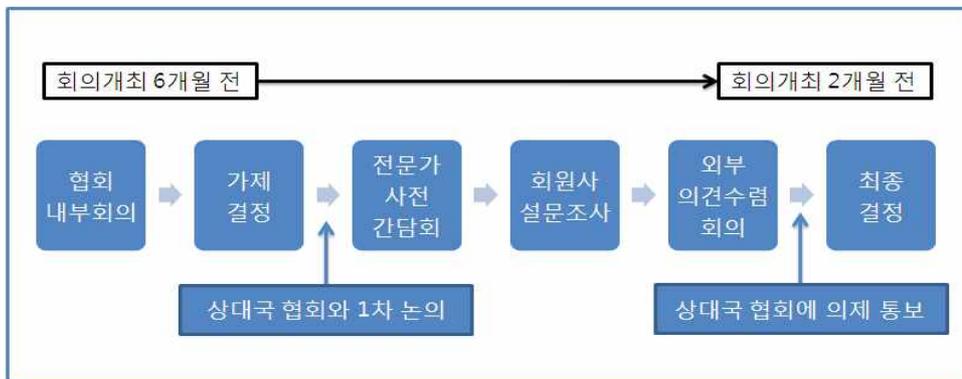
## 2) 의제 결정 과정

-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한 양국간 경제협력의 변화와 그 의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일 경제인회의의 회의내용은 물론 의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8) 1987년 제주에서 열린 제19회 회의부터 참가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 회의부터 부인동반 참여방식으로 바꾼 점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부인동반 형식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참가자는 회장단의 일부 참가자들이라고 한다.

- 각각의 회의 의제를 확인하면 그 당시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분야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요 안건이 무엇이었는데도 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 다만 가령 양국의 입장이 상이한 상황이라면 의제 결정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을 것임
- 따라서 양국 간에 어떠한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의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음
- 한일경제인회의는 실질적인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양국 협회가 의제결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그림 2> 참조).
- 기본적으로 매회 의제 결정은 회의 개최국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먼저 회의 개최 약 6개월 전에 협회 내부 회의를 통해 가제를 정한 뒤 전문가 혹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 그 이후 의제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상대국 협회에게 의제를 통보하고 확인하고, 가제가 협회 내부에서 결정된 직후에 상대국 협회와 1차 논의를 거치기 때문에 최종 결정 직전에 상대국에 의제를 통보하더라도 큰 의견차이 없이 최종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림 2> 한일경제인회의 의제 결정 과정



-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결정된 의제는 그 이후에 결정되는 회의에서 발표하는 연사의 선정 및 내용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됨
-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정된 의제와 회의의 구체적인 구성은 회의가 끝나고 양국이 함께 의논하여 작성하는 공동성명문의 내용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됨

- 최종적으로 작성된 공동성명문은 양국이 회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은 물론 양국이 앞으로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한일 경제협력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용 확인이 필요한 자료임

### 3. 연대별 한일경제인회의와 한일 경제협력 과제

#### 1) 1970년대

##### a) 회의 의제 분석

- 1969년부터 1979년까지 개최되었던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양국 경제인이 주로 논의한 내용을 경제협력, 산업기술, 무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의제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 <표 2>이며, 이 시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일반적인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한국의 중화학공업화와 농촌 근대화를 위한 일본의 협력을 요청하는 의제가 많다는 특징이 있음
  - 한국의 사회간접자본 개발협력과 자본협력이라는 의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특징도 있음
  - 이 시기 한국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기계공업 분야에 대한 일본의 협력 강화가 필요했음을 의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음
- 둘째, 산업기술 측면에는 기술연구생 파견과 경영기술협력 방안과 관련된 의제가 많았다는 특징이 있음
  - 특히 구체적 분야로는 조선, 기계, 금속공업 분야의 기술협력과 분업체계 확립이 논의의 초점이었던 것으로 보임
  - 1970년대 중후반부터는 기술협력을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와 관련한 의제가 계속해서 선정되었으며 기술이전과 관련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음
- 셋째, 1969년 첫 번째 회의부터 한일 무역불균형 문제가 의제로 선정되었다는 점은 작금의 한일 경제 문제의 변함없는 화두가 무역불균형 문제인 점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1978년에 이미 한일경제인회의 산하에 한일무역확대균형위원회가 만들어져 매 회의 때마다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1970년대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양국간 교역량 증가를 전제로 한 무역불균형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된 것으로 보임

<표 2> 1970년대 한일경제인회의 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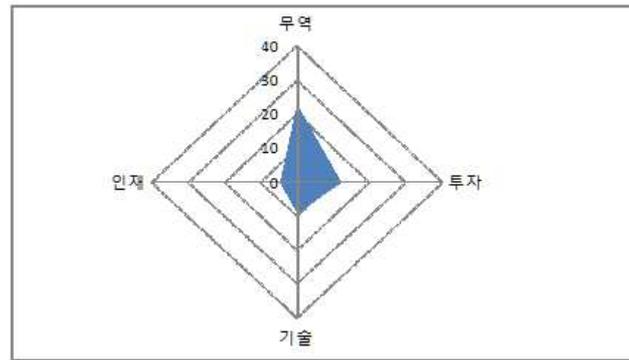
	의제	
	세부 분야	구체적 내용
1회 (1969)	경제협력	직접투자촉진 방안, 농수산 해운 개발협력, 사회간접자본 개발협력, 투자환경 정비
	산업기술	기술연수생 파견과 교육, 경영 협력 확대 및 경영지도 방안, 민간 기술교류 촉진방안
	무역	무역 불균형 시정, 무역증진, 정책 및 제도개선
2회 (1970)	경제협력	양국의 경제상황 검토, 기계공업 분야 직접투자 협력, 경제협력 추진 전문기구 설치
	산업기술	조선, 기계, 금속 공업의 분업체계 확립,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기술연수생 파견, 훈련, 기술 도입 필요 업종 선정
	무역	관세, 가공무역 부문의 정부제도 개선, 민간 차원 무역확대
3회 (1971)	경제협력	업종별 투자유치조사단 설치, 투자 유치를 위한 합병금융기관 설치
	산업기술	산업구조 재편성과 일본의 협력, 경영기술협력 방안, 업종별 협력위원회 설치
	무역	관세, 가공무역 부문의 정부제도 개선, 민간 차원 무역확대
4회 (1972)	경제협력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민간 협력, 한일합병투자금융기관 설립
	산업기술	한국의 경영개선을 위한 공업소유권 문제, 한국의 기계공업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
	무역	한일 무역확대 방안, 국제정세에 따른 무역협력 방안
5회 (1973)	경제협력	중화학공업 개발협력, 새마을사업 부문 협력
	산업기술	합병투자 및 기술제휴 촉진, 기계공업 육성을 위한 협력방안, 산업기술교육 및 직업훈련확충을 위한 협력
	무역	양국 경제 및 무역현황 검토, 정책 및 제도 개선, 민간 차원의 무역협력
6회 (1974)	경제협력	한국의 중화학공업개발계획과 경제협력
	산업기술	공업소유권 협정발효와 기술협력 방향, 직접투자 문제(기업유치협의회 설치 등)
	무역	교역증진 및 원자재 확보 문제
7회 (1975)	경제협력	최근 국제 금융 시장 동향과 한일 자본협력, 중화학공업 개발을 위한 민간 협력(특히, 기계공업 개발 촉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산업기술	분업관계의 개선방향, 기술이전'센터' 설립 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문제
	무역	수입제한조치 완화를 위한 상호 협력, 통상항해협정체결 문제
8회 (1976)	경제협력	중화학공업 개발을 위한 자본협력, 한국의 종합금융회사 구상에 대하여
	산업기술	직접투자에 관한 협력 방향, 투자보장협정에 대하여, 산업기술협력 사업에 관한 문제
	무역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협조체제 강화, 수입제한조치 철폐 및 특혜관세 적용확대, 해운협정에 대하여
9회 (1977)	경제협력	한국의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자본협력(기계전자화학 등 중화학공업 개발, 전력 및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협력, 농업 개발 위한 협력), 새로운 차원의 경제협력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 문제
	산업기술	투자기술협력, 종합기술협력기구 설치
	무역	무역확대 균형 저해요인 제거, 협력 수출, 무역확대 균형을 위한 제언 기타(해운 및 관광 협력)
10회 (1978)	경제협력	기계공업 협력 및 제3국 공동 진출, 원자재 공동 개발협력, 경제협력 장기구상 전문위원회 설치
	산업기술	투자 및 기술협력 문제(합병투자 추진, 기술개발협력, 기술협력 협정체결 촉진), 기술이전 문제, 대륙담 공동개발 문제
	무역	양국 무역 현황 검토, 무역확대균형위원회 보고, 무역확대 균형 저해요인 시정, 한일간 종합상사의 활동 활성화
11회 (1979)	경제협력	한일 기계공업협력 전문위원회 보고, 경제협력 장기구상 기구 활성화 방안
	산업기술	장기 대형 기술개발 과제연구 협력, 기술이전 문제
	무역	한일무역확대균형위원회 보고(무역확대, 무역불균형 시정 방안)

자료: 각 연도 한일경제인회의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함.

## b) 공동성명문 내용 분석

-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한일경제인회의는 의제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된 회의결과를 양국 대표가 의논하여 마지막으로 공동의 성명문을 발표함
  - 일반적으로 이 성명문에는 양측이 합의한 내용과 함께 상대국에 대해 해결과 개선 등을 요청하는 안건이 수록되며 그 요청안건에 대한 상대국의 입장과 향후 일정이 함께 기록됨
  - 따라서 이렇게 작성된 공동성명문은 한일 경제협력의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협력 방향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됨
- 이하에서는 공동성명문에 담긴 한일 경제협력의 의미를 탐구하는 방법으로 공동성명문 전문에서 주요 경제협력 분야, 즉 투자, 무역, 기술, 인재교류 등의 4단어를 검색하여 그 해에 중요하게 논의했다고 볼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조명해 보기로 함
- 1970년대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논의 분야는 무역 분야로 나타남 (<그림 3> 참조).
  - 본 회의가 시작되는 해부터 한국측이 줄곧 일본측에 요청해 왔던 무역불균형 문제가 검색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또한 무역불균형과 함께 무역확대를 위한 구체적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공동성명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투자 분야도 중점 논의 대상이었으며 한국은, 특히 1970년대 초에는 농어촌 개발과 중화학 분야, 1970년 후반에는 섬유 분야에 대한 일본 기업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경제협력의 또 다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기술 분야는 회의 의제는 물론 공동성명문에서도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뿐만 아니라 인재교류 등과 같은 경제협력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음

&lt;그림 3&gt; 1970년대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문에 나타난 경제협력 중요 분야



주: 1969-1979년 각 연도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문 전문에서 해당 각 단어를 검색한 결과임(단, 무역에는 수출과 수입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켰으며, 인재에는 연수생과 인력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켰음).

자료: 각 연도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 2) 1980년대

### a) 회의 의제 분석

- 1980년대 경제인회의는 1985년을 기점으로 전후의 의제가 크게 다르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제공한 것은 1985년 플라자합의였음(<표 3> 참조)
  - 먼저 1980년대 초에 경제협력 분야에서 주로 논의된 사항은 일본측이 제안한 환태평양 경제공동체였음
  - 배타적이며 폐쇄적인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개방된 연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일본 측의 설명에 한국 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몇 년 간 지속해서 의제로 선정되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양국간 투자촉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음
- 한편 산업기술 측면에서는 1970년대에 이어 변함없이 기술이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중소기업과 부품 소재의 중요성이 새로운 의제로 자주 등장하였음
  - 한국 측의 요청으로 일본 측의 부품개발협력 조사단이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1980년대에는 한국 중소기업의 부품개발력에 대한 일본측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또한 1980년대는 한일 경제협력의 산업기술 측면에서는 한국 기능공의 일본 연수와 한국 기술자의 교육 및 훈련 지원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음
  - 즉 1980년대는 한국 제조업 현장의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파견되어 관련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던 시기였음

- 마지막으로 무역 분야의 경제협력은 1970년대 무역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의제로 선정되었던 것과는 달리 1980년 후반부터 한국 제품의 대일 수출과 부품소재 협력이 자주 논의되었음
- 한국의 대일본 수출이 경제협력의 중요한 의제로 부각된 것은 1985년 플라자합의 결과로 엔화가 급격하게 평가 절상되면서 한국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임
- 주지하는바와 같이 1986년부터 1989년까지 한국의 경상수지는 전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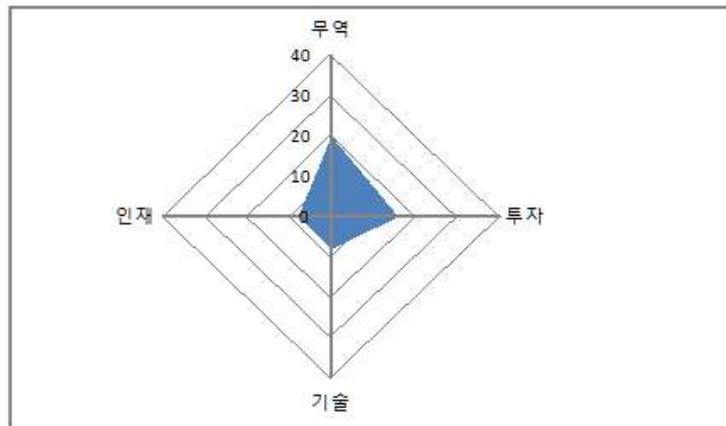
<표 3> 1980년대 한일경제인회의 의제

	의제	
	세부 분야	구체적 의제
12회 (1980)	경제협력	환태평양경제공동체 구상과 한일 경제협력 장기구상 연구위원회 설치, 해외자원 공동 개발, 기계공업의 개발협력
	산업기술	장기대형기술개발협력, 일반 기술이전의 촉진
	무역	한일무역확대균형위원회 보고, 무역협력 방안
13회 (1981)	경제협력	환태평양 경제공동체 구상, 장기대형기술개발전문기구 설치 추진, 경제협력 장기구상 연구위원회 설치 추진, 중소기업협력전문위원회 설치 추진
	산업기술	기술협력의 제약요건 해소, 전자공업분야 기술협력 방안
	무역	특혜관세 제외에 따른 섬유, 직물 제외 방안, 일본 종합상사의 법적 지위 향상
14회 (1982)	경제협력	중소기업협력전문위원회 설치 추진, 경제협력장기구상위원회 개최 보고
	산업기술	한국의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 보고, 첨단대형복합기술 공동개발, 한국 기술자의 교육 및 훈련 지원
	무역	정책 및 제도 개선, 민간 차원 경제협력
15회 (1983)	경제협력	제3국에 공동 플랜트 수출, 한일 중소기업 간 합작투자 및 정보 제공, 한국의 외자 도입정책, 한국의 투자환경 정비
	산업기술	첨단기술이전, 해운협력
	무역	무역 개방과 한국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무역불균형 시정, 구매조사단 상호 파견
16회 (1984)	경제협력	한국의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일본의 자유화 정책
	산업기술	기능공 및 기술자 일본 파견 훈련, 기술협력 실무위원회 구성, 한국의 기술협력 환경 정비, 해운협력
	무역	무역불균형 협력, 대형 구매사절단 한국 파견, 한국의 수입다변화
17회 (1985)	경제협력	일본측의 투자조사단 한국으로 파견
	산업기술	기능공 연수확대, 기술이전의 활성화, 해운협력
	무역	한국의 무역촉진단 일본 파견
18회 (1986)	경제협력	일본측이 한국으로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조사단 파견, 한국의 투자환경 조사 결과에 대한 일본측 발표
	산업기술	부품개발협력을 위한 조사단 방한, 기술이전 창구 활성화, 기능공연수훈련 확대
	무역	한국 수출촉진단 일본 파견
19회 (1987)	경제협력	부품개발협력 미션 활동보고, 중소기업 협력
	산업기술	산업협력과 중소기업, 기술이전 활성화
	무역	무역확대 방안과 환경개선, 무역구조 변화와 한일 무역
20회 (1988)	경제협력	한국의 경제동향, 일본 경제구조와 아시아NICS
	산업기술	한일 산업협력의 기본 방향, 투자기술협력 방향
	무역	한일 무역과 일본의 역할, 일본의 무역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
21회 (1989)	경제협력	한국경제 동향, 일본 유통업계의 한국 제품에 대한 대응
	산업기술	태평양시대의 한일 기술협력, 투자기술협력 방향
	무역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 지역별 경제통합과 한일 양국의 자세

자료: 1980-1989년 각 연도 한일경제인회의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함.

## 2) 공동성명문 내용 분석

- 1980년대에는 1970년대에 비해 투자에 대한 논의 빈도는 거의 같았으나 무역이 다소 줄어들었고 기술과 인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투자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경제협력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의제였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이 시기에 한국은 일본측 에 적극적인 대한 투자를 요청하는 반면 일본측은 한국 측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문장이 공동성명문에 자주 등장함
  - 실제로 1980년대에 한일 간의 교역량은 물론 투자규모도 1970년대에 비해서는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음
- 한편, 1980년대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문에서는 한일 양국이 기술에 대해 언급하는 건수가 1970년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특징이 있음
  - 특히,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한국의 기술자를 일본에 파견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합의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가령 1983년에서 1985년의 3년간 한국측은 지속적으로 한국 기술자의 일본 기업 파견이 민간 차원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1986년에 한일경제인회의 산하에 기술이전 전문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하였음
  - 또한 기술과 관련하여 공동성명문에서 언급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령 1988년에는 최근 양국간 기술협력이 수평적 상호 보완적 분업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부품산업과 중소기업 등 저변기술 분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음

**<그림 4> 1980년대 한일경제인회의의 공동성명문에 나타난 경제협력 중요 분야**

자료: <그림 3>과 같음.

- 1980년대 한일경제인회의의 가장 큰 변화는 한일 양국이 인재교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임
  - 앞서 언급한 기술교류의 핵심적 논의 사항도 결국 양국 기술자의 교류확대에 있는 것이지만,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재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양국 경제인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한국의 기술자들은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일본으로 연수를 가는 것인 반면 일본의 기술자가 한국 기업으로 오는 것은 기술전수를 위한 것이었음
  - 이 같은 기술교류 패턴은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기 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2) 1990년대

### a) 회의 의제 분석

- 1990년대 의제로 선정된 테마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협력 분야가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임
  - 구체적으로는 첫째 전자산업, 원자력, 물류, 관광 등과 같은 특정 산업 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되었음

- 여러 산업 중에서 특히 한일 간 교류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용이하고 가능하다고 판단한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실제 다음에서 살펴볼 공동성명문 곳곳에서 그러한 취지의 문장들이 발견되기 때문임
- 둘째, 지금까지는 전혀 의제로 선정되지 않았던 양국 지역 간 협력이 처음으로 이 시기에 의제로 선정되어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사실 일본의 규슈지역과 한국의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하기로 결정하는 등 이러한 움직임의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것은 2000년대 들어서지만 이 시기부터 지역 간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해당 지역을 선정하는 작업을 했던 것임
- 셋째, 기업 간 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경제협력에 대한 정부 간 논의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결국 실행 주체인 기업의 결정이 수반되어야 함
  - 즉 기업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협력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이 시기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경제협력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음
- 그 이외에도 한일 두 나라 관계에서 벗어나 아시아를 시야에 두고 한일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이며, 1999년에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최초로 한일자유 무역지대 창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즉, 2000년대 들어서 주요 논의 사항으로 자주 의제로 등장하는 한일 FTA의 발상과 토대가 이미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음

<표 4> 1990년대 한일경제인회의 의제

	의제	
	세부 분야	구체적 의제
22회 (1990)	경제협력	일본경제의 노사 문제, 지구환경 문제, 북방경제교류와 한일 경제
	산업기술	기업 간 기술협력 사례, 한일기술협력 방향
	무역	일본 소비성향과 한국 상품의 기대, 국제 무역과 한일의 역할
23회 (1991)	경제협력	한일 지역 간 교류, 환경오염, 호텔 분야 협력,
	산업기술	동북아시아대와 한일기술협력, 화학공업 분야의 기술교류, 일본의 품질관리
	무역	한일 무역 균형 확대, 아시아NICs 상품과 일본의 소비 시장, 한일 무역 전망
24회 (1992)	경제협력	투자환경 변화와 교류의 중요성, 한일 문화교류와 기업의 공헌, 일본 동북지방과 한국의 경제교류
	산업기술	새로운 기술협력 방향, 일본의 물류현황과 한일 협력
	무역	한일 무역현황, 아시아와 한일 경제, 한일 무역불균형
25회 (1993)	경제협력	환경보전과 기업의 역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설립
	산업기술	한국 중소기업 기술자의 일본 연수, 한일 기능공 협력, 중소기업의 산업조정과 한일 협력
	무역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에 대한 산업협력 방향, 아시아와 한일 경제
26회 (1994)	경제협력	한일 지역 간 교류, 규슈, 야마구치 지역과 한국의 교류,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생산성 증진 교육, 환경 문제
	산업기술	한일 산업구조 변화와 효과적 산업기술협력, 일본의 산업구조 변화와 아시아와의 기술협력
	무역	한일 신협력시대의 공존·공영을 위한 한일 협력, 아시아 무역구조의 변화와 한일 협력
27회 (1995)	경제협력	과거, 현재, 미래의 한일관계, 한일 관광산업의 진흥
	산업기술	전환기의 한일관계와 한일 기술협력 방안, 아시아의 기술협력 미래
	무역	WTO 체제 하에서 양국 협력 방안, WTO 체제 하에서 한일 무역의 미래
28회 (1996)	경제협력	21세기 경영가치관과 새로운 한일관계, 아시아 물류전개 현황과 과제
	산업기술	한일 전자산업 현안과 협력 방안, 한일 산업협력의 구체화를 위한 과제
	무역	전환기의 한일 무역, 세계 속의 한일 무역
29회 (1997)	경제협력	한일 협력 환경변화와 지역 간 협력 확대, 일본의 경제금융 구조개혁
	산업기술	한일 원자력 협력의 미래, 21세기를 향한 일본 산업
	무역	한일 협력을 통한 구조조정의 가속화, 경제의 세계화와 한일 무역
30회 (1998)	경제협력	한국경제 상황, 변화된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산업기술	한일 산업기술협력의 과제와 전망, 한일산업의 글로벌화와 2개국 간 경제관계 변화
	무역	한일 무역현황과 협력 방향,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무역의 변화
31회 (1999)	경제협력	한일자유무역지대 창설의 영향과 전망, 한일 기업 간 협력
	산업기술	한일 건설협력 방향, 일본 기업은 한국의 투자환경을 어떻게 보나?
	무역	한국의 투자환경, APEC 투자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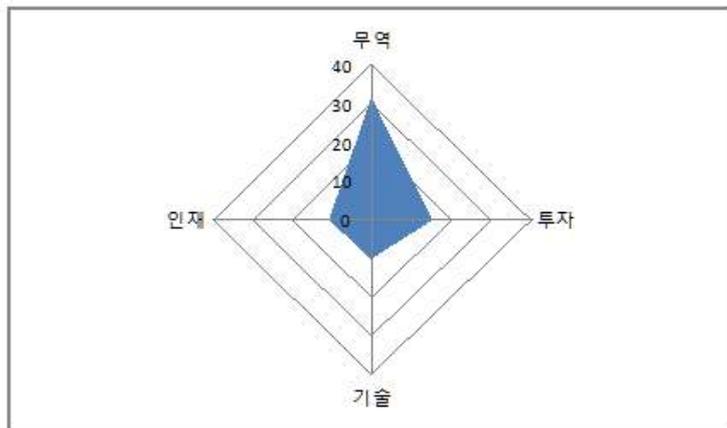
자료: 1990-1999년 각 연도 한일경제인회의의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함.

b) 공동성명문 내용 분석

- 1990년대 공동성명문의 주요 특징으로는 무역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사실 이 시기는 한국의 대외수출이 증가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따라서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음
  -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한일경제인회의로 이어졌을 것으로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음

- 실제 1990년대 공동성명문에는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이라는 단어가 거의 매년 등장하고 있음
  - 특히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양국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즉 한국은 산업구조의 개선과 기술 혁신으로 산업 및 부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은 규제 완화와 같은 시장개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이러한 흐름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경제인회의의 의제가 양국의 금융개혁으로 관심이 옮겨가기 전까지 지속되었음

<그림 5> 1990년대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문에 나타난 경제협력 중요 분야



자료: <그림 3>과 같음.

#### 4) 2000년대

##### a) 회의 의제 분석

- 2000년대 초 경제인회의의 가장 큰 관심은 중국이었는데, 중국경제의 부상이 한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이 시기의 의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중국에 대한 한일 양국의 관심은 한중일 경제협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 방향과 산업별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는 의제가 여러 차례 등장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맥락에서 동아시아와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도 수 차례 이루어졌음
- 한편 한일 FTA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도 이 시기에 들어와서부터임
  - 2000년대 초 거의 매년 의제로 한일 FTA가 들어가 있었으나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의제에서 사라짐
  -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는 한일 간에 FTA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체결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논의가 중단되다시피 했기 때문임
- 그러나 최근에 다시 한일경제인회를 통해 양국 경제인들이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강력히 지지하며 한일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양국 정부에 대해 조속한 실현을 촉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뿐만 아니라 2000년 후반에서 최근까지의 공동성명문에는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위한 구체적 시책으로 양국 기업의 상업적 기회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공업단지 활용을 통한 양국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적극 모색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음
- 반면 무역에 대한 언급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것이 이 시기의 특징 중 하나임
  - 1990년대 무역불균형 확대 경향이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무역불균형에 대한 특히 한국측의 관심이 없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며, 그 보다 중요 의제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임
- 이 시기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제3국 공동 진출과 인재, 문화교류의 확대와 같이 기존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협력의 방법과 분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한일 양국으로의 진출이 아닌 한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제3국으로 진출을 도모하고 투자와 무역 일변도였던 경제협력 분야에서 점차 인재교류로 그 대상이 변화하고 확산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5> 2000년대 한일경제인회의 의제

	의제	
	세부 분야	구체적 의제
32회 (2000)	경제협력	한일 비즈니스 연대, 뉴라운드 시대의 한일 협력,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기반 정비, 한일 지역 간 협력, 한일 해양교류
	산업기술	인터넷을 활용한 한일 기업 간 협력
	무역	무역불균형의 근본 원인과 대책
33회 (2001)	경제협력	환황해권 지역 간 국제물류협력 방안 투자환경, 일본의 자본 시장 현황
	산업기술	제조업에 있어서의 IT활용과 협력 방안, 한일 금융협력, 일본의 산업 구조조정과 경제계 대응
	무역	부품소재산업 협력을 통한 무역확대 방안
34회 (2002)	경제협력	중국경제와 한일 기업의 대응, 한중일 경제관계, 지역 간 협력, 한류로 본 동아시아 상호 협력
	산업기술	FTA 추진방안
	무역	해당 사항 없음
35회 (2003)	경제협력	투자교류 활성화, 대일 협력을 위한 한국의 중소기업 실태, 한일 중소기업의 상호 보완
	산업기술	물류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 간 협력 방안, 제조업 협력 방안, IT 분야의 투자확대 방안
	무역	해당 사항 없음
36회 (2004)	경제협력	한일 산업공동화 대책, 한일 중소기업 협력 활성화 방안
	산업기술	한일 FTA와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한일 중소기업 교류, 혁신주도형 산업정책
	무역	해당 사항 없음
37회 (2005)	경제협력	한중일 문화공동체, 한일 해협 교류 현황과 과제
	산업기술	제조업(철강, 소재) 협력, 문화 서비스 산업협력
	무역	해당 사항 없음
38회 (2006)	경제협력	중국경제 부상과 한일 협력 과제, 아시아의 문화, 물질·인적 교류 중요성, 한국과 북해도 교류현황
	산업기술	한국의 FTA 추진정책
	무역	해당 사항 없음
39회 (2007)	경제협력	동아시아의 부상과 한일 협력 강화, 중국의 산업정책과 외국인 투자정책 변화
	산업기술	한일 투자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환경경영(마츠시다 사례), 한일 FTA와 동아시아
	무역	한일 무역확대를 위한 과제
40회 (2008)	경제협력	한일 기업의 이노베이션 창조능력 강화를 위한 과제
	산업기술	한일 기술경쟁력 강화와 경제교류, 한일간 부품소재 교류실태와 협력, 한일 전자부품 사례
	무역	한일간 균형 있는 무역확대, 한국의 대중국 편중현상,
41회 (2009)	경제협력	기후변화 협약과 기업의 대응, 지구 환경 문제, 아시아 지역의 자원순환형 사회구조
	산업기술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및 기회, 대한투자 활성화, IT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무역	한일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42회 (2010)	경제협력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일 협력
	산업기술	그린 비즈니스의 전개와 방향, 태양광 발전 및 환경 경영
	무역	해당 사항 없음
43회 (2011)	경제협력	글로벌 해외프로젝트와 한일 협력, 일본 대지진 이후의 한일 협력 방안, 동아시아 자원안전보장
	산업기술	한일산업발전과 인재교류, 한일 청년인재의 수용방안
	무역	해당 사항 없음
44회 (2012)	경제협력	세계경제의 불투명성 심화와 한일 협력, 세계금융 불안정과 동아시아 역내 금융안정을 위한 한일 협력, 글로벌화 속에서 강화되는 한일 경제관계
	산업기술	일본 시장에서의 진로의 사례, 한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는 생산 네트워크의 새로운 구축, 제3국 공동 진출과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무역	해당 사항 없음

자료: 2000-2012년 각 연도 한일경제인회의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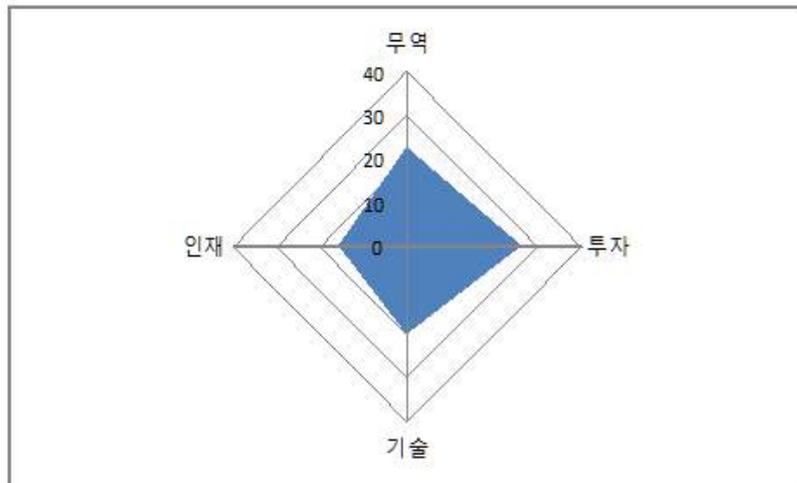
**b) 공동성명문 내용 분석**

□ 2000년대 공동성명문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무역보다 투자가 자주 거론되었다는 점임

- 앞서도 언급했으나 한일 간의 무역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경제인들의 관심에서 이와 유사한 주제는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상대적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제3국 공동 진출과 같이 양국의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투자이기 때문으로 보임
  - 물론 이 시기 공동성명문을 통해서 양국 국내 시장을 겨냥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한 협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점진적이지만 인재교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가능함
- 이전까지는 부분적으로 한국 기술자를 일본으로 파견하거나 일본 기술자를 한국으로 초빙하는 방식의 인재교류였으나 최근에는 산업인재교류 분야와 규모가 점차 확산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즉 경영자 교류 네트워크 운영이 필요하다고 양국간 합의한 점도 그렇고 전문인력 오픈 이노베이션 풀을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임

<그림 6> 2000년대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문에 나타난 경제협력 중요 분야



자료: <그림 3>과 같음.

## 5. 미래의 협력 방향

- 앞서 한일 경제협력의 발전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한일경제인회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연대별 회의내용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한일 경제협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협력에서 선진국 간 경제협력

그리고 양국의 경제통합과 다국 간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음

-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양국은 경제적으로 긴밀한 교류와 유대관계가 유지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협력 채널은 양국 정부였음

□ 또한 양국 경제인 대표들이 모이는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의 경제교류가 시작되었으나 1970년대까지는 여전히 한국이 일본에게 일방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회의의 성격이 강했음

- 그러나 점차 보상적 지원에서 벗어나 공동의 이익추구를 위한 의제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고, 특히 그러한 움직임은 2000년대 들어와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음

- 한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따라 양국 기업 간 협력 분야가 확대되었고 이른바 윈윈(Win-Win) 협력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며, 최근에는 이러한 선진국 간의 경제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한일 경제통합 혹은 다국간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단계로 경제협력이 진화하고 있음

□ 둘째, 그 동안 한일 경제협력은 정부 주도 하의 경제·산업협력에서 민간 중심의 경제·산업협력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기업·지역 간 협력으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음

- 양국 정부가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의 경제협력이 아니라면 결국 경제협력의 최종 주체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음

- 투자를 단행하든 수출입을 추진하든 경제협력의 핵심을 이루는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기업의 판단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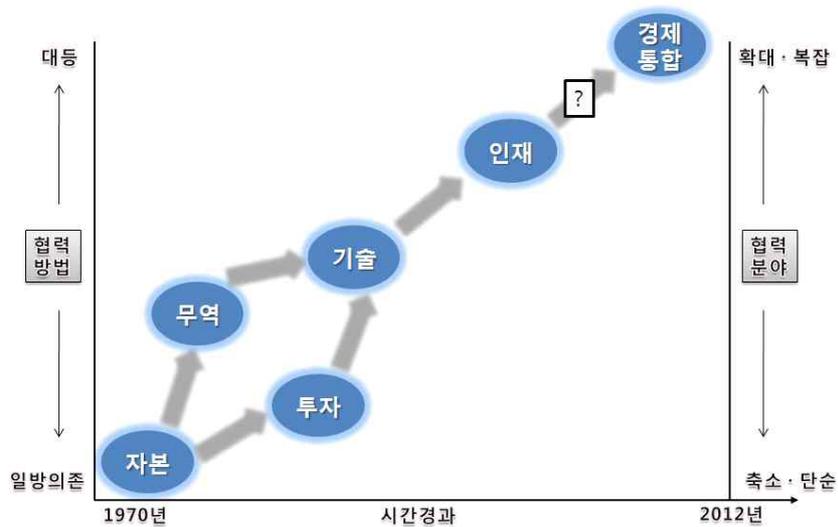
□ 그런 의미에서 한일 경제협력이 그 동안의 경제협력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특정 지역과의 협력으로 경제협력이 진화하는 것 역시 경제협력의 구체적 성과를 올리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임

- 막연한 대상과 분야가 없이 협력을 논의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나서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실현될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지기 때문임

- 셋째, 한일 경제협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경제협력 분야가 보다 구체적으로 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음(<그림 7> 참조).
- 연대별로 경제인회의에서 다루어진 의제와 내용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본→무역·투자→기술→인재로 변해왔음을 알 수 있음
-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일부 공동성명문에서 확인은 되지만 거의 기술과 인재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음

<그림 7>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본 한일 경제협력의 진화 과정



- 양국 경제인들이 관심을 보인 경제협력 분야는 무역과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특히 1980년대는 양국 간 투자 활성화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1990년대는 한일 무역불균형이 가장 중요한 의제였음
- 그러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인재교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최근에는 한일 FTA와 더불어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일 경제협력 방향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한중일 경제협력을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협력의 주요 핵심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제조업의 생산거점과 판매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은 물론 협력 파트너로서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기 때문임

- 즉, 중국의 제조업 기술향상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기업과의 분업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둘째, 한일 양국 간의 투자 및 무역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협력 방향 설정이 필요함
  - 최근 한국의 대일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대일 수입은 줄어들면서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 이러한 무역구조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어 한일 경제의 고질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이 진화되어야 할 것임. **KICF**

#### <참고자료>

- 김도형(1996), “한·일 경제관계 재검검과 신산업협력,” **한일경상논집** 제12권.
- \_\_\_\_\_ (2003), “동북아 경제통합을 위한 한일의 역할,” **일본학보** Vol. 55, No. 2.
- 김승진(1992), “동북아 경제협력시대의 한일의 역할,” **한일경상논집** 제9권.
- 김양희 외(2008), 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일 FTA에의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종걸(2008), “한미FTA와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협력,” **한일경상논집** 제41권.
- 박재욱·류재현(2009), “한일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 비교연구,” **지방정부연구** Vol. 13, No. 2.
- 오태현(2010), “日·韓半導體クラスター協力のあり方について,” **일본연구논총** Vol. 31.
- 오태현 외(2008), 미래지향적 한일기업 간 협력방향과 대응전략,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이상덕·이종윤(1997), “정보화시대와 한·일경제협력,” **한일경상논집** 제12권.
- 이종윤·김현성(2010), “한·일경제 65년의 회고와 금후의 협력방향,” **한일경상논집** 제49권.
- 이흥배(2011), “한일 부품소재산업의 협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고찰,” **동북아경제연구** Vol. 23, No. 1.
- 임천석·이우광(1997), “동아시아 경제의 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방안,” **한일경상논집** 제14권.
- 이현진(2010),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경제협력 논의의 전개과정,” **사립** 제35호.
- \_\_\_\_\_ (2011), “1960년대 후반 정세변화와 한일경제협력의 논의,” **한국사상사학** 제38집.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산업연구원(1998), **한일간 부품 및 자본소재산업의 전략적 제휴방안**.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한국기계산업진흥회(2001), **한일부품소재협력방안**.
- 한일경제협회, 한일경제인회의 보고서(1969년-2012년).
- (財)北陸産業活性化センター(2002), **北陸地域と韓国との分野における企業間連携促進に係る調査研究**.
- 野村総合研究所(1999), **日韓産業の戦略的協調に関する基礎研究**.
- \_\_\_\_\_ (2003), **日韓兩國の中小企業相互補完可能性調査報告書**.
- 日本機械輸出組合(2000), **韓国の投資環境と日韓機械産業協力ニーズ**.
- 村上敦(1979), “貿易入門 — 國際經濟感覺を養うために,” 有斐閣新書, 有斐閣.
- 金良姫(2010), “グローバル經濟危機と韓日日韓經濟協力の枠組みの再構築,” **東アジア經濟經營学会誌** 第3号.
- 永野 慎一郎(2008), **相互依存の日韓經濟關係**, 勁草書房.
- 小此木 政夫·張 達重(2005), **戦後日韓關係の展開**, 日韓共同研究叢書<1 4>, 慶応義塾大学出版会.
- 小此木 政夫·河 英善(2012), **日韓新時代と經濟協力**, シリーズ 日韓新時代 <2>, 慶応義塾大学出版会.
- 浜下 武志·崔 章集(2007), **東アジアの中の日韓交流**, 日韓共同研究叢書, 慶応義塾大学出版会.